토의 및 느낀점

202021218 김재영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named pipe를 통해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작성해보았다. 다른 전공 수업 ‘sw오픈소스입문’에서 mkfifo를 통해 linux 쉘에서 mkfifo를 통해 named pipe를 만들어보긴 했지만 직접적인 실습을 하진 않아서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진 못하고 있었다. 이번 운영체제 프로젝트 덕분에 네임드 파이프를 통한 서버-클라이언트 간의 소통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공부가 되었다.

기존에는 네임드 파이프 설명을 들었을 때 하나의 파이프를 통해서도 양 방향 통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직접 실습을 통해서 파이프를 이용한 통신 환경을 구축해보니 왜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 파이프가 두 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었다.

Linux 운영체제를 비교적 깊게 다뤄본 적이 없어서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번 프로젝트 과제가 그렇게 깊은 수준을 요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몇몇 c언어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시스템 함수를 gpt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습득한 후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환경을 쉽게 구축했기 때문이다. 시험 공부 이외에도 이러한 실습 과제를 통해서 개념의 내용을 공부해보니 개념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느낄 수 있어 좋은 기회의 과제였다고 생각한다.